



# “드럼세탁기 돌리다 생각났죠, 고기 굽기 딱이라고”

김인호 대동애프앤디 사장은 매끼 고기 반찬을 챙겨먹을 정도로 소문난 '고기광(狂)'이다. 어느 날 아내를 도와 세탁기를 돌리던 김 사장의 머리에 '회전하는 드럼통에 고기를 넣으면 굽기 편하고 육질도 쫄깃쫄깃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고, 3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드럼룩'을 내놓았다. 드럼룩은 자동으로 회전하는 멀티 조리기구다. 드럼세탁기에서 착안한 제품이라서 이름도 비슷하게 지었다.

◆자동 회전하는 멀티 조리기구  
원리는 간단하다. 식재료를 내솥에 넣은 뒤 뚜껑을 닫고 시간만 설정하면 된다. 자동으로 회전하는 내솥이 가열되면서 재료를 뒤집고 섞어주며 기름을 분리해 배출한다. 뚜껑 가장자리의 실리콘 압력 패킹이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 바비큐 등 구이와 튀김, 볶음 요리를 냄새나 연기 없이 조리할 수 있다. 식재료는 20인분까지 투입 가능하다.

김 사장은 “내솥이 불판 작용을, 뚜껑의 압력 패킹이 수분 흡수 작용을 해서 음식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혀준다”며 “타이머를 설정하면 알아서 조리되기 때문에 요리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 전력이 690W로 낮은 편이라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캠핑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세척도 편리하다. 요리가 끝나면 내솥과 기름받이를 분리해 씻으면 된다.

◆“조리해 먹은 돼지만수십마리”  
그는 수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바비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품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미 일본에 1만여

해 봤다. 김 사장은 “내가 구워 먹은 돼지 고기를 무게로 따지면 수십 마리에 달할 것”이라며 “직접 만들어 본 식재료별 조리법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품이 앞을 보며 가스로 눌려진 형태라 밑으로 고기에서 빠진 기름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는 것이 관건이었다. 뚜껑의 패킹 금형을 일곱 차례 바꾸는 바람에

고기 없인 못 사는 ‘고기狂’  
자동 회전하는 드럼룩 개발  
재료 섞어주며 기름은 ‘쫄’

“현재 유럽 국가와 수출상담  
종합 주방가전업체 도약 목표”

공장 설비시설도 여러 차례 변경해야 했다. 개발을 완료한 김 사장은 드럼룩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대량생산 체제 갖춰 가격 낮출 것”  
김 사장은 “판매가격이 30만원대 후반으로 높지만 조리된 음식 맛을 보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며 “대량 생산설비를 구축해 가격을 20만원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드럼룩은 중소기업 제품 전용관인 행복한세상백화점과 면세점,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 중이다.

그는 수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바비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품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미 일본에 1만여



김인호 대동애프앤디 사장이 경기 고양시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회전하는 조리기구인 '드럼룩'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개를 수출했으며 유럽 국가들과도 수출을 논의 중이다.

김 사장이 1990년 설립한 대동애프앤디는 전기그릴, 밥솥 등을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들어 왔다. 김 사장은 ‘내 브랜드에 대한 욕심이 생겨 최근 미니룩(분리형 미니밥솥, 요거

룩(요구르트 제조기) 등을 선보였다. 직원 7명이 올해 매출 1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도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을 꾸준히 내놓겠다”며 “종합 주방용품 회사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대동애프앤디의 드럼룩 (031)919-1359 △비스로의 자동차 도난방지 엔진락 (031)491-0226 △에스티씨의 보안용 컬러 카메라 (042)536-6761 △인사이트과외의 와트드림 (070)4624-6993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논란

# “복제약 판매 지연엔 부당이익 환수” VS “특허권 침해... 유례없는 과잉입법”

(복지부)

VS

(다국적제약사)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허권을 이용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킬 경우 복제약 판매가 늦어진 기간에 팔린 오리지널 약값의 30%를 강제 환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유례없는 과잉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개정안 이달 중 처리”  
보건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을 제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이달 중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특허권 침해와 복제약 제약사 간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복제약 제약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오리지널 제약사 약값의 30%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허가 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가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 특허 소송 패소시

오리지널 약값 판매액 30% 환수  
다국적제약사 “특허권 유명무실”

복지부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배경은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허가·특허연계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복제약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는 가장 9개월 동안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가 문제 삼는 대목은 오리지널 제약사가 실제 특허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재과장은 “실제로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오리지널 제약사가 요청하면 기계적으로 판매 중단시킬 수 있는 게 맹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이 건강보험재정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제약사 가격은 자동으로 30% 인하되기 때문이다. 판매금지 조항을 적용하면 다국적 제약사는 가장 9개월 동안 약값 인하를 늦출 수 있는 반면 건강보험재정에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 “정당한 권리제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간 1200억원이 팔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복제약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9개월 동안 약값의 30%인 270억원을 징수당할 수 있어서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분을 강제로 환수하는 법안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취지를 유명무실화할 뿐 아니라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특허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고 일률적으로 특허권 남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다는 것이다.

배시내 한국다국적의약품협회 이사는 “특허 소송 패소만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허 패소만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손실을 특허권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향후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들어 약값 환수를 ‘의의성이나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 이사는 “개정안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과잉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 환수 조항은 삭제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 유진기업, 서울 시내면세점 설립 나선다

### MBC와 여의도 사옥 입점 협약

유진그룹의 모회사이자 레미콘업계 1위인 유진기업은 서울 여의도동 옛 MBC 사옥에 시내면세점 설립을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유진기업은 최근 MB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면세점 입점과 함께 관광사업 활성화 및 문화 콘텐츠사업 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MBC 여의도 사옥은 방송국에서 서울상업동으로 이전한 뒤 공실상태다. 이곳은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내면세점 가운데 공황과 가장 가깝다. 주변에 경쟁 면세점이 없고 지상에 대형버스

30대 주차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유진기업은 오는 6월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낼 경우 기존 방송시설을 활용한 공연장이나 호텔 등 연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자제품 전문매장 하이마트를 운영했고 복권사업과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유통업에 관심이 많았다”며 “유통업 진출에 면세점 사업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진기업은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1개 업체에 주어지는 중소·중견 면세사업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 중기청, 100개 대학서 우수 中企 취업설명회

중소기업청은 대학들과 공동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 인력 채용을 위한 취업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발표했다.

취업설명회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우수 중소·중견기업에는 좋은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장구를 상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상반기(5~6월)와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쳐 100개 대학, 80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바로 알기 특강 및 상담회를 열어 ‘히든챔피언(강소기업)’ 기업현황과 취업전략

을 소개하고 해당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소개할 방침이다. 오는 5월과 10월 중 여덟 차례에 걸쳐 우수 기업이 대학으로 직접 찾아가는 채용분야별 설명회를 열어 관련 분야 전공 인재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www.hpe.or.kr) 내 온라인 채용관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채용정보도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중기청은 또 글로벌 기업 성장에 필요한 인재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인재경영력을 오는 11월까지 8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 앞으로 10년, 한국 없는 중국은 있어도, 중국 없는 한국은 없다!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국 50개 육박, 미·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위협 - 연합뉴스(2015.4.2)**

**왜 우리는 중국이 필요한가?  
중국은 왜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짜 중국의 모습에서 생존의 길을 찾는다!**

30년 경력의 KOTRA 무역관장이 사력을 다해 밝혀낸 중국발 위기와 기회의 실제, 그리고 우리의 생존법!

앞으로 10년, 한국 없는 중국은 있어도 중국 없는 한국은 없다  
권장월 지름 | 18,000원

## 어떤 스타트업이 성공하는가? 성공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 바이블!

**가장 핫한, 가장 트렌디한,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비즈니스 모델 101가지!**

-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라!
- 가치사슬형, 플랫폼형, 사회적 가치 기반형 모델에 따른 각 기업별 구조도
- 각 모델별 핵심제약가치, 수익공식, 핵심자원, 핵심프로세스 상세 분석
- 신규 스타트업, 신수종 사업 기획, 기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고민하는 리더의 필독서!

한스미디어 Tel. 02-707-0337 | Fax. 02-707-0198